

## 권력동기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Index of Personal Reaction 문항에 대한 재해석\*

고 현 석                      민 경 환                      김 민 희<sup>†</sup>  
공군사관학교 인문학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권력동기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동기이지만 지금까지 적절한 측정도구가 마련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권력동기를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재구성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 대한 개관을 바탕으로 권력동기를 구성하는 주요 하위 요인으로 '지위 추구'와 '영향력 선호'를 가정하고, 권력동기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Bennett(1988)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 Index of Personal Reaction에서 정의에 부합하는 문항을 추출하여 권력동기 척도를 새롭게 구성하고, 총 604명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권력동기 척도의 신뢰도, 요인구조 및 구성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권력동기 척도는 높은 수준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지위 추구'와 '영향력 선호'의 2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동기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준거 변인과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권력동기 척도의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규범타당도, 그리고 예언타당도가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또한 권력동기 척도는 권력지향적인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외향성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한 증분 설명량을 보임으로써 외향성과는 별도로 지위 추구 행동을 고유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권력동기 척도가 개인의 권력동기 수준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권력동기, 지위 추구, 영향력 선호, 구성타당도, 예언타당도

\* 본 연구는 제 1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박사논문 심사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주신 서강대학교 조공호 교수님, 서울대학교 김청택 교수님, 이훈진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김민희,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06722)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66, E-mail: pseudo@kcg.ac.kr

권력은 인류 역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기에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례로 영국의 철학자 Bertrand Russell (1938)은 “권력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들 가운데 가장 강렬하고 으뜸이 되는 욕망으로, 물리학에서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이 에너지라면 사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바로 권력”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pp. 9-15). 권력은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타인을 착취하고, 폭압하는 악의 탄생을 초래하는 양면성이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폭력적인 식민지배와 그 뒤를 이어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군부독재의 상처로 인해 권력의 의미를 억압, 부자유 등의 단어와 동일시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한병철, 2011). 그 결과 명시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경계대상이 되며, 권력에 대한 욕망을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드러내놓는 것은 철저히 금기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개념을 맹목적으로 부정하거나 도외시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합리적이면서 객관적인 이해를 저해한다. 권력은 단지 정치인이나 행정가에게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라, 가정, 조직, 사회, 그리고 국가 수준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행동을 유발하는 강력한 동인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를 경험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학문적인 주제로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권력동기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동기에 대한 올바른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Mayer, Faber, & Xu, 2007). 권력동기를 측정하려는 연구자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정의에 따라 투사적 방법 혹은 자기보고식 방법을 사용하여 권력동기를 측정하여 왔고, 이것은 권력동기에 대한 연구결과의 일관성 부재라는 결과를 가져왔다(King, 1995; Schultheiss, 2008; Schultheiss, Yankova, Dirlikov, & Schad, 2009). 따라서 권력동기의 측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권력동기의 정의와 구성요소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권력동기의 정의와 구성요소

학자들에 따라 인간의 보편적 동기의 수와 종류에서 다소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다수의 연구자들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하는 동기 중 하나는 바로 권력동기이다(Bakan, 1966; McAdams, Healy, & Krause, 1984; McClelland, 1987; Winter, 1993, 2007; Winter, John, Stewart, Klohnen, & Duncan, 1998; Zubriggen, 2000). 권력동기는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동기로 가정되기 때문에 Murray(1938)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이를 연구해 왔다. 표 1에는 그간 주요 연구자들이 내린 권력동기의 정의가 기술되어 있는데, 문체는 권력동기를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성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개념을 구성하는 주요한 하위 요인을 명확하게 규정하

표 1. 주요 연구자들의 권력동기 정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강함을 느끼는 경험에 대한 반복적인 선호 또는 준비성(McAdams, 1988, p. 84)
영향력, 위신, 명예에 대한 관심 및 추구(Winter, 2007, p. 921)
타인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위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Hofer, Busch, Bond, Campos, Li, & Law, 2010, p. 380)
타인의 태도, 감정,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과 지위와 위신을 갖는 것에 대한 관심(Schonbrodt & Gerstenberg, 2012, p. 726)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하는 것에 대한 관심(Schultheiss, 2013, p. 53)

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권력동기를 구성하는 핵심 차원을 규정하고, 권력동기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먼저 기존에 학자들이 내린 정의를 검토하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요인을 추출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위(status)’와 ‘영향력(influence)’이다. 지위는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권력동기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차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Winter, 1973). 한편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일반적으로 영향력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나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높은 지위가 선행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두 개념은 밀접하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Fiske, 2010). 예를 들어 영향력은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는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위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권력동기 정의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핵심 요인을 반영하여 권력동기를 “지위를 추구하고, 사람과 상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기”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정의에 따르면 개인의 권력동기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지위’와 ‘영향력’의 두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인데, 이는 뇌양스에서 차이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차이를 내포한다. ‘행사한다’는 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하므로 특질 개념의 정의를 반영한다. 이에 반해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의도나 목표와 같은 동기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정의이다. 개념적으로 동기는 특질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개인차 성향이지만 특질과는 달리 다양한 형태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Atkinson, 1982; Winter, 2007, p. 921에서 재인용). 셋째, 본 정의에서는 ‘욕구(need)’라는 용어 대신 ‘동기(motive)’라는 표현을

채택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권력욕구(need for power)와 권력동기라는 용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예: Cornelius & Lane, 1984; Fodor & Wick, 2009; Jemmott, 1987; Wang, Liu, & Zheng, 2011; Winter, 1987), 기본적으로 욕구라는 용어는 동기가 의식적인 수준에서 자각될 수 없다는 정신분석적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동기를 의식적으로 접근하고,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권력욕구라는 용어 대신 권력동기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동기에 대한 영어 표현으로 ‘motive’와 ‘motivation’이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motivation은 일시적인 상태를, motive는 안정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리한 바 있다(Schultheiss, Strasser, Rosch, Kordik, & Graham, 2012). 본 연구에서는 권력동기를 일시적인 상태로 간주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개인차 차원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motive’라는 표현을 채택하였다.

#### 권력동기의 측정

지난 60년간 질문지로 측정한 동기 점수와 환상의 내용분석을 통해 측정한 동기 점수 간에는 상관이 없거나 상관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미약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Schultheiss et al., 2009). 그 이유에 대해 McClelland, Koestner와 Weinberger(1989)는 인간의 동기가 서로 구분되는 두 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동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딜레마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King, 1995).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으로 권력동기는 투사적 방법과 자기보고식 방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어 왔다.

먼저 Murray(1938)는 정신역동 이론에 근거하여 주제통각검사(thematic apperception test: 이하 TAT)를 제작하였다. TAT는 모호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해 그 사람의 욕구나 소망과 관련된

환상을 분석하는 것으로 인간의 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최초의 측정방식이었다는 점에서 공헌을 하였다(Schultheiss & Pang, 2007). 그러나 응답내용을 평정하는 데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이후 연구자들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검사방식인 PSE(picture story exercise)를 고안하였다(McClelland et al., 1989). PSE 역시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묘사하는 4~8장의 그림 자극에 대해 이야기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평정함으로써 개인의 동기 수준을 평가한다(Schultheiss, Dargel, & Rohde, 2003). PSE에서 응답한 반응을 기반으로 권력동기를 채점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Winter 채점체계(Winter Scoring System)로, 이 체계는 현재 권력동기를 평정하는 데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Winter, 1973, 1991, 1992).

하지만 투사적인 방식으로 권력동기를 측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우선 투사적 측정방식은 채점체계에 대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평정자가 응답내용을 평정하는데(예: Magee & Langner, 2008; Winter, 1987), 채점을 진행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양적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권력동기를 채점하는 기준과 범주가 광범위하다. Winter 채점체계(1992)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거나 공격하는 것 등의 이질적인 행위를 모두 권력동기로 범주화하여 채점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권력동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성격변인(예: 공격성, 이타주의 등)이 더 주도적인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신뢰도의 문제로 TAT 측정방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낮았으며(Entwisle, 1972; Fineman, 1977), 연구결과 또한 상당 부분 경험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Lilienfeld, Wood, & Garb, 2000). 넷째, 무의식적인 추동과 같은 동기 개념은 정상적인 성격을 연구하는 영역보다는 병리적인 환자를 다루는 임상장면에서 보다 유용할 수 있다(Good & Good, 1972). 마지막으로 권력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화된 자극이 없고(Fodor & Farrow, 1979; Fodor & Riordan, 1995; Langan-Fox & Grant, 2006),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림을 선정하기 때문에(Sokolowski, Schmalt, Langens, & Puca, 2000) 연구마다 선택되는 그림과 수량이 상이하다. 따라서 검사자극이 균일하지 않고 이질적이며(Moser & Gerth, 1986), 그 결과 서로 다른 조건에서 얻어진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투사적 측정방식은 심리측정적인 결점과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투사적 방식과 더불어서 동기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동기 수준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Thrash, Maruskin, & Martin, 2012), 이러한 전통에서는 행동의 유발과 선택에서 의식적인 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권력동기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들이 다음과 같이 개발되어 왔다.

먼저 성격특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PRF(Personality Research Form: Jackson, 1967, 1984)의 지배성 척도는 일부 연구에서 권력동기를 측정하는 대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동기와 특질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서로 다른 수준에서 행동에 관여하기 때문에(Emmons, 1995; Winter et al., 1998) 특질 측정도구로 동기를 측정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예를 들면 지배적인 특질을 가진 사람은 범상항적으로 일관되게 지배적인 행동을 보이는 반면,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지위나 영향력을 선호하지만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다음으로 SOI(Social Orientation Inventory)는 Good과 Good(1972)이 사회적 권력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 하지만 SOI는 매우 지엽적인 행동을 반영하고 있으며(예: 학교 체육 시설의 합법적인 사용을 결정하는 것), 문항이 매끄럽지 못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결점이 있다(예: ~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지 않다). Moser와

Gerth(1986)는 Winter 체점체계(1973)의 내용범주를 반영하여 Power Motive Questionnaire를 제작하였다. 이 척도는 권력지향적인 행동을 반영하는 문항과 상관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척도의 문항이 많고, 권력동기를 구성하는 요인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며, 척도의 제작 과정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부족하다. Raskin과 Hall(1979)이 자기애적인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의 하위 요인인 권력욕구가 TAT 방식으로 측정된 권력동기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남을 고려할 때(Carroll, 1987), NPI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NPI의 요인분석 결과가 일관되지 않으며(예: 정남운, 2001; Emmons, 1987; Raskin & Terry, 1988), 또한 NPI가 애초에 DSM 진단준거를 기반으로 제작된 척도임을 고려할 때 정상 성격보다는 병리적인 성격을 측정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UMS(Unified Motive Scale: Schonbrodt & Gerstenberg, 2012)는 문항반응 이론을 적용해 제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UMS는 외견상 유사해 보이나 실제로는 서로 다른 차원의 구성개념인 가치, 특질 지배성, 목표 등을 측정하는 척도들을 구체적인 선별기준 없이 모두 포함시켰다. 그 결과 내용 측면에서는 권력에 대한 생각, 지배적인 행동 특성, 권력에 대한 선호도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형식 측면에서도 문장의 형태(예: 나는 타인을 이끄는 데 흥미가 없다)와 명사형의 형태(예: 위신이 있는 지위)가 일관성 없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권력동기라는 단일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보인다. 즉, UMS는 권력동기 척도라기보다는 지배성이나 권력과 관련된 다양한 구성개념들을 묶어 놓은 척도모음(inventories)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까지 제작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측정문항이 특질 지배성 척도와 유사함, 둘째, 목표, 선호와 같은 동기적인 특징을 반영하지 못함, 셋

째, 권력동기의 조작적 정의와 핵심 요인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음, 넷째, 척도의 제작과정에서 구성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음, 다섯째, 권력지향적인 행동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함.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들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 간에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으며, 개발된 척도 또한 후속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지 못했다. 따라서 권력동기의 구성요소를 잘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기보고식 척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 Index of Personal Reaction 문항의 재해석

새롭게 구성되는 권력동기 척도는 전술한 내용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 먼저 측정문항의 내용과 형식은 특정한 행동을 기술하기보다는 동기적인 형태(예: 하고 싶다, 좋아한다, 중요하다)를 갖추어야 하고, 권력동기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 주제와 하위 요인(예: 지위, 영향력)을 반영해야 하며, 구성개념에 대한 엄격한 심리측정적 검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Bennett(1988)이 개발한 Index of Personal Reaction(이하 IPR)이 있다. Bennett은 동기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대부분의 척도가 동기적인 성향이 아닌 특질 수준의 지배성이나 통제성향을 측정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PR은 기존 척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정한 행동을 기술하는 문항은 제외하고, 목표나 선호를 묻는 것처럼 동기적인 속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Bennett은 권력 욕구와 영향력 욕구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라 가정하고, 이들 변인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여러 척도에서 상기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문항들을 추출하였으며, 여러 표본에 걸쳐 전체 문항풀을 요인분석하여 문항을 정제한 결과 4개의 요인이 발견되었다 -

권력 욕구(*n*Power), 영향력 욕구(*n*Influence), 지각된 능력(perceived ability), 복종에 대한 저항(*n*Subordination). 그리고 이들 요인 중에서 중심이 되는 *n*Power 요인은 ‘지위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추구’로, *n*Influence 요인은 ‘타인을 설득하고 영향을 주고자 하는 동기’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에 대한 개관을 통하여 도출한, 본 연구에서의 권력동기의 조작적 정의(지위를 추구하고, 사람과 상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기)와도 합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PR을 구성하는 하위 척도 중에서 *n*Power 요인, *n*Influence 요인을 새롭게 구성되는 권력동기 척도의 주요 하위 요인으로 가정하고, 이들 요인을 각각 ‘지위 추구’와 ‘영향력 선호’로 재해석하였다. IPR의 전체 하위 척도 중에서 이들 요인만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IPR이라는 측정도구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IPR은 권력동기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척도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권력 및 영향력을 측정하는 다양한 질문지들을 요인분석하여 도출된 결과를 사후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척도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본래의 연구목적과 달리 부차적으로 도출된 요인(지각된 능력, 복종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근거나 설명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IPR 하위 척도 중 지각된 능력은 권력에 대한 선호나 목표를 측정하는 문항이 아니라 효능감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동기와는 상이한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IPR에서 도출된 모든 요인을 권력동기 척도에 반영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권력동기의 범위 문제에 있다. 즉, 효능감이나 저항심처럼 권력동기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개념들을 권력동기의 구성요소에 포함시킬 경우 권력동기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암묵적 동기를 측정하는 투사적 측정방식과 명시적 동기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간의 상관이 매우 낮은데(Schultheiss et al., 2009), 이는 두 측정방식

의 채점 범주가 불일치하기 때문일 수 있다(Schonbrodt & Gerstenberg, 2012). 이는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기존의 권력동기 연구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원인과도 관련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본고에서는 다수의 학자들이 권력동기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목해 온 ‘지위 추구’와 ‘영향력 선호’ 요인만을 새롭게 구성되는 권력동기 척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IPR은 비록 개발된 지 30여년이 지나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권력동기의 핵심 주제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권력동기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문항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활용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PR 중에서 권력동기의 하위 요인과 관련된 문항을 추출한 후 엄격한 타당화 과정을 거쳐 권력동기 척도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권력동기가 ‘지위 추구’와 ‘영향력 선호’라는 두 개의 주요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2요인 구조를 검증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척도 제작과정에서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도 분석이 일부 부족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권력동기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다각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이 실제로 권력지향적인 행동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행동지표를 선정하여 예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권력동기를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IPR 문항을 활용 및 재해석하여 새롭게 구성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 방 법

본 연구는 모두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1단계에서는 권력동기 척도를 한국어로 변환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탐

색하고, 문항을 선별하였다. 2단계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교차 타당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상관 및 회귀분석을 통해 권력동기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 1단계: 척도 번안 및 탐색적 요인분석

권력동기 척도를 번안하기 위해 먼저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전체 문항을 번안한 후 심리학 교수 2인, 심리학과 대학원생 7인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의 논의를 통해 어색하거나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후 원문항과 한국어 문항의 의미를 최대한 같게 하기 위해 영문학 전공자 1인과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통번역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역번역 과정을 거쳤다. 이후 권력동기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각 요인에 적합한 문항을 선별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참가자 및 절차

4년제 대학에서 재학 중인 학부생 263명(1차 표본)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2명의 설문을 제외한 261명(남자 111명, 여자 15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1.6세(SD=2.1)였으며, 연령범위는 18세에서 29세였다. 설문은 수업시간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의 목적 및 내용, 연구참여자의 권리 등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 측정도구

##### 권력동기 척도

Bennett(1988)이 개발한 Index of Personal Reaction(IPR)을 사용하였다. IPR은 ‘지각된 능력’, ‘권력 욕구’, ‘영향력 욕구’, ‘복종에 대한

저항’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서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원칙도에서 권력 욕구(*nPower*)와 영향력 욕구(*nInfluence*)를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던 요인들을 ‘지위 추구’와 ‘영향력 선호’로 재해석하였으며, 이 둘 두 요인이 권력동기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가정하였다. 원칙도는 지각된 능력 12문항, 권력 욕구 10문항, 영향력 욕구 9문항, 복종에 대한 저항 8문항 등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지위 추구’와 ‘영향력 선호’이지만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는 모든 문항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 자료분석 및 결과

IPR 전체 문항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SPSS 18.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요인수를 4로 지정한 후 직접 오블리민 방식으로 요인을 회전시킨 결과, IPR 전체 문항은 Bennett(1988)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나타냈다(부록1). 하지만 본 연구의 관심사는 IPR 전체 문항이 아니라 권력동기의 하위 요인으로 가정되는 지위 추구(요인1)와 영향력 선호(요인4)에 있으므로 이 두 요인을 따로 추출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위 추구를 측정하는 10문항과 영향력 선호를 측정하는 9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공통성이 .3 보다 낮은 문항이 2개 나타났다. 이어서 이들 문항 중 안면 타당도와 해석 가능성이 낮은 1개의 문항(영향력 선호 요인: 비록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나의 행동이나 생각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면 좋을 것 같다)을 삭제하고, 18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다시 진행한 결과, 고유값(eigenvalue)이 1보다 큰 요인이 2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유값만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정하는 것은 요인 수를 과다 또는 과소 추출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인수를 판단하는 데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해 주는 평행 분석(parall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Hayton, Allen, & Scarpello, 2004). 평행 분석은 분석자료와 동일한 표본 수, 변인 수에 해당하는 무선자료를 생성한 후 분석자료의 고유값이 무선으로 생성된 고유값보다 높은지를 기준으로 하여 요인수를 정한다. 분석 결과 무선자료보다 큰 고유값이 2개 나타났는데, 이는 18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로 2요인이 적합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을 결정하기 위한 선별기준으로 요인별로 요인부하량이 .3 이하이고, 두 요인에 교차부하되는 값의 차이가 .1 이하인 문항은 부적절한 문항으로 간주하였

다. 그 결과 모든 문항이 .3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였으나, 2개의 요인 모두에 .1 이하의 차이로 교차되는 문항이 2개(지위 추구 요인: ‘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업무를 계획하고 각각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즐겁다’) 나타나 이들 문항을 삭제하고 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요인별 8문항씩 총 16문항이 결정되었으며, 두 요인의 총 설명 변량은 51.74%, 요인간 상관은 .59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16문항이 권력동기의 2 요인 구조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CEFA 3.04(Comprehensive Exploratory

표 2. 권력동기 척도 16문항의 요인구조 (N=261)

권력동기 척도 문항	요인	
	영향력 선호	지위 추구
28. 나는 나의 생각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정말 기쁘다.	<b>.803</b>	.060
30. 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는 느낌을 좋아한다.	<b>.783</b>	.053
27. 나는 사람들이 나의 제안을 따를 때 만족스럽다.	<b>.754</b>	.074
29. 나는 내가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b>.653</b>	-.100
25.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동의하거나 나와 관점을 공유할 때 정말로 즐겁다.	<b>.650</b>	.007
23.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b>.641</b>	-.150
26. 나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내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업에 매력을 느낀다.	<b>.634</b>	-.214
2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느낌을 좋아한다.	<b>.591</b>	-.131
16.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권력을 갖는 것을 딱히 좋아하지는 않는다. (R)	-.031	<b>-.881</b>
15. 나는 권력이나 영향력 있는 지위를 얻는 데 관심이 없다. (R)	-.040	<b>-.848</b>
17. 권력 그 자체는 나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R)	-.153	<b>-.682</b>
1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지시해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R)	.121	<b>-.630</b>
21. 나는 언젠가 큰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233	<b>.617</b>
18. 나는 힘 있는 경영자나 정치인이 되면 즐거울 것 같다.	.162	<b>.606</b>
13.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권위를 지닌다면 즐거울 것 같다.	.193	<b>.562</b>
19. 내가 리더인지 아닌지는 나에게 큰 차이가 없다. (R)	.146	<b>-.316</b>

주. (R)은 역문항



표 3. 권력동기 척도의 적합도 지수 비교결과 (N=261)

	$\chi^2$	df	RMSEA (90% 신뢰구간)	ECVI (90% 신뢰구간)
1요인 구조	260.0	104	0.127 (0.116; 0.138)	2.321 (2.056; 2.615)
2요인 구조	205.565	89	0.071 (0.058; 0.084)	1.152 (1.006; 1.328)
3요인 구조	131.472	75	0.054 (0.038; 0.069)	0.975 (0.867; 1.113)

Factor Analysis: Browne, Cudeck, Tateneni & Mels, 2008)를 사용하여 다시 요인분석을 하였다. CEFA는 요인분석 결과에 더해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같은 적합도 지수를 추가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요인분석 결과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CEFA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적합한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요인수를 1에서 3으로 변경해 가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적합도 지수를 해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RMSEA가 .05보다 작은 경우는 좋은 적합도(close fit), .05에서 .08사이는 양호한 적합도(reasonable fit), .10 이상인 경우는 수용하기 어려운 적합도(unacceptable fit)로 해석한다(Browne & Cudeck, 1992). 이 기준을 적용 시 1요인 구조의 RMSEA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요인 구조와 3요인 구조는 모두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나 모형의 간명성과 해석가능성을 고려할 때 2요인 구조가 더 적합하였기 때문에 이를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지금까지 진행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해석가능성, 요인부하량, RMSEA, 그리고 평행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단계: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밝혀진 권력동기 척도의 2요인 구조가 새로운 표본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교차 타당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가자 및 절차

4년제 대학에서 재학 중인 학부생 346명(2차 표본)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외국인 교환학생 3명의 설문을 제외한 343명(남자 193명, 여자 15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0.4세(SD=2.0), 연령범위는 18세에서 30세였다. 참여자들은 설문조사의 목적 및 내용, 연구 참여자의 권리 등에 대한 안내를 들은 후 자발적인 선택에 의하여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 응답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설문작성에는 대략 20분이 소요되었다.

자료분석 및 결과

자료분석은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하위 요인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권력동기 척도가 단일 요인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1요인 모형은 경쟁모형으로, 2요인 모형은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모형을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로는 RMSEA, NNFI(non-normed fit index: Tucker & Lewis, 1973), CFI(comparative fit index: Bentler, 1990) 등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NNFI와 CFI는 .90 이상인 경우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2요인 모형은 주요 적합도 지수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쟁모형인 1요인 모형은 모든 적합도 지수가 수용할 수 없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N=343)

	$\chi^2$	df	CFI	TLI	RMSEA	ECVI
2요인 모형 (연구모형)	277.357	103	.930	.919	.070	1.098
1요인 모형 (경쟁모형)	678.300	104	.770	.735	.127	2.264

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두 모형은 내포(nested) 관계를 갖기 때문에 두 모형의 비교를 위해 카이스퀘어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2요인 모형이 1요인 모형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Delta\chi^2(1)=400.943, p<.01$ ). 2요인 모형에서 각 개별 문항들과 해당 요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하였으며, 회귀계수 또한 .48에서 .86의 범위를 나타내 해당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간 상관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유사한 수준인 .64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권력동기 척도가 지위 추구와 영향력 선호라는 2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권력동기 척도의 기술통계량, 내적 합치도 및 성차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권력동기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두 표본에 걸쳐 .87에서 .92의 범위를 보여 전체적으로 높은 일관성을 나타냈다. 남녀 간의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

과 두 표본 모두에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권력동기에 있어 남녀 간 성차가 없다는 Winter(1988, 1992)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3단계: 구성타당도 검증

권력동기 척도의 구성타당도 검증은 Aquino와 Reed(2002)가 척도 타당화를 위해 진행한 절차와 방법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구성타당도가 입증되기 위해서 측정도구는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그리고 규범타당도를 갖추어야 한다. 먼저 수렴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도구와는 높은 상관율, 변별타당도가 확인되기 위해서는 상이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도구와는 낮은 상관율을 보여야 한다(Campbell & Fiske, 1959). 규범타당도(nomological validity)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인과 예상되는 방식으로 상관을 보여야 한다(Aquino & Reed, 2002). 또한 권력 지향적인 행동과 관련된 측정치를 준거로 하여

표 5. 권력동기 척도의 기술통계량, 내적 합치도 및 성차

		전체	남	여	Cronbach $\alpha$	t
1차 표본 (남=111, 여=150)	권력 동기	3.38(.65)	3.43(.63)	3.34(.67)	.92	1.126
	지위 추구	3.05(.80)	3.12(.79)	3.00(.81)	.88	1.321
	영향력 선호	3.71(.64)	3.74(.61)	3.70(.66)	.90	.655
2차 표본 (남=193, 여=150)	권력 동기	3.39(.60)	3.39(.63)	3.39(.56)	.91	-.130
	지위 추구	2.99(.79)	3.02(.81)	2.96(.75)	.88	.704
	영향력 선호	3.79(.57)	3.75(.59)	3.83(.53)	.87	-1.251

주. 권력동기 = 지위 추구 + 영향력 선호

권력동기 척도의 예언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권력동기 척도의 고유한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해 증분 타당도(incremental validity)를 확인하였다.

#### 참가자 및 절차

구성타당도 검증은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1차 표본)과 확인적 요인분석(2차 표본)에 참여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의 분량을 고려하여 관련 변인들을 두 표본에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 측정도구

##### 사회적 지향성 척도

권력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Good과 Good(1972)이 이분형으로 제작한 SOI(Social Orientation Inventory)를 Booth, Vinograd-Bausel과 Harper(1984)가 7점 척도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OI는 조직을 이끌고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동기의 친사회적 측면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승민(200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되, 일부 이해가 어려운 문항은 영문학 전공자의 감수를 받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에 응답한 343명 자료의 내적 합치도는 .94로 나타났다.

##### 자기에적 성격검사

Raskin과 Hall(1979)이 개발한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를 정남운(2001)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남운의 연구에서 NPI는 리더십/자신감, 권력욕구/특권의식, 과시/칭찬욕구, 우월의식의 4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NPI는 본래 이분형 강제선택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나 양적 분석을 보다 정밀히 하기 위해 리커트 형식으로 변경하여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NPI 하위 요인 중 권력동기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권력욕구 9문항과, 권력동기와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는 과시욕

구 9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에 응답한 343명 자료의 내적 합치도는 요인별로 각각 .84, .80으로 나타났다.

##### 자존감 척도

Rosenberg(1965)가 전반적인 자기개념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SES(Self-Esteem Scale)를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ES는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본 척도에 응답한 201명 자료의 내적 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바람직성

Paulhus(1998)가 개발한 BIDR(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을 정보라(2005)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BIDR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자기기만적 고양과 의식적으로 자신을 좋게 보이려는 인상 관리의 두 요인을 각 10문항으로 측정한다. BIDR은 문항에 과장되게 반응하는 경향을 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5점 척도 상에서 4점, 5점으로 반응한 문항은 1점으로, 1점~3점으로 응답한 문항은 0점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에 응답한 343명 자료의 내적 합치도는 요인별로 각각 .64, .71로 나타났다.

#####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

정남운(2004)이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라 구성한 KIAS(Korea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를 사용하였다. KIAS는 8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통제(지배) 차원의 양극단에 있는 자기확신/주장(PA), 비주장/소심(HI) 성향을 측정하는 10문항을 사용하였다. KIAS는 제시된 형용사가 자신의 평소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며, 본 척도에 응답한 343명 자료의 내적 합치도는 PA와 HI가 각각 .86, .84로 나타났다.

**외향성**

Goldberg와 Saucier(1996)가 성격의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를 유태용, 김명언, 이도형(1997)이 변안한 척도 중에서 외향성을 측정하는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예시문항은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등이며,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본 척도에 응답한 191명의 내적 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권력지향적 활동경력**

현실에서의 실제 권력지향적인 활동경력을 조사하기 위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기간 중 학생회나 동아리, 각종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과 직책을 빠짐없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개방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응답은 ‘전체 활동경력수’와 ‘리더십 지위’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는데, ‘전체 활동경력수’는 연구참여자가 기입한 직책(예: 고등학교 회장, 학생회 대표, 회원 등) 및 단체(예: 신문사, 학생회, 동아리, 청소년 클럽 등)의 수를 단순 합산한 것이며, ‘리더십 지위’는 각 단체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그 단체의 임원급(예: 회장, 부회장, 반장, 대표, 부장, 국장 등)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합산하여 점수를 산출한 것이다. 따라서 동아리나 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나 직책을 맡고 있지 않는 일반 회원인 경우, 이들

의 응답은 ‘전체 활동경력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리더십 지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본 질문에 응답한 251명의 ‘전체 활동경력수’ 평균은 4.0, 표준편차는 2.79, ‘리더십 지위’ 평균은 2.3, 표준편차는 2.08로 나타났으며, 두 변인 간 상관은 .74, 내적 합치도는 .83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및 결과**

권력동기 척도와 준거 변인과의 상관분석 결과는 Cohen(1988, pp. 77-81)의 해석기준에 따라 상관계수의 크기가 .1 수준일 때는 효과크기가 작은 것으로(small), .3 수준일 때는 중간 정도로 (medium), .5 수준일 때는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large) 해석하였다. 먼저 표 6에서 권력동기 척도는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사회적 지향성 척도( $r=.76, p<.01$ ), NPI 하위 요인인 권력욕구( $r=.76, p<.01$ )와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본 척도가 수렴타당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권력동기와 자존감, 사회적 바람직성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으나, Bennett(1988)의 연구에서 이들 변인이 IPR 하위 요인과 낮은 상관을 보인 것에 비추어 볼 때 권력동기와 이들 변인 간의 관계가 개념적으로 독립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권력동기 척도는 상이한 구성개념으로 가정되는 자존감 및 사회적 바람직성과 낮은 상

표 6. 권력동기 척도의 준거타당도 ( $n=201\sim343$ )

	SOI	nPower (NPI)	SES	BIDR		KIAS		nSA (NPI)	전체 활동 경력수	리더십 지위
				SDE	IM	PA	HI			
권력 동기	.76**	.76**	.06	-.02	-.11*	.40**	-.38**	.37**	.24**	.31**
지위 추구	.70**	.72**	.02	-.04	-.19**	.30**	-.33**	.33**	.21**	.27**
영향력 선호	.63**	.62**	.10	.03	.03	.42**	-.34**	.32**	.22**	.29**

주. SOI = 사회적 지향성 척도; nPower = NPI 권력욕구 요인; SES = 자존감 척도; BIDR =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SDE = 자기기만적 고양 요인; IM = 인상관리 요인; KIAS =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 PA = 자기확신/주장 요인; HI = 비주장/소심 요인; nSA = NPI 과시욕구 요인.

\*  $p<.05$ , \*\*  $p<.01$

관을 보여야 한다. 분석 결과 권력동기 척도는 자존감( $r=.06, n.s.$ ) 및 사회적 바람직성(자기기만적 고양:  $r=-.02, n.s.$ , 인상관리:  $r=-.11, p<.05$ ) 모두와 상관이 낮았는데, 이는 권력동기 척도의 변별타당도를 입증해 주는 결과이다.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논쟁에서 이기려 하고, 타인의 시선을 끌며 주목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inter, 1973; Winter et al., 1998). 따라서 개념적으로 권력동기는 주장성, 과시욕구 같은 개념과는 정적 상관을, 비주장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야 한다. 분석 결과 권력동기 척도는 주장성( $r=.40, p<.01$ ), 과시욕구( $r=.37, p<.01$ )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비주장성( $r=-.38, p<.01$ )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본 척도의 규범타당도를 입증하는 결과이다. 이어서 권력동기 척도의 예언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권력동기는 ‘전체 활동경력수’( $r=.24, p<.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가입된 단체에서 일반회원이 아닌 임원급 이상의 지위를 맡은 경우를 합산한 ‘리더십 지위’( $r=.31, p<.01$ )와도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권력동기가 높을수록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추구함과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위를 추구하고 획득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력동기 척도의 증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성격특질 중 외향성은 리더십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udge, Bono, Ilies, & Gerhardt, 2002). 따라서 사회적 활동 및 지위획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향성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권력동기가 추가적인 설명량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예측변인의 투입순서로 1단계에서는 외향성을, 2단계에서는 권력동기를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체 활동경력수의 경우 외향성은 결과변인 변량의 3.6%를,  $F(1,189)=7.132, p<.01$ , 권력동기는 근사치로(marginally) 유의한 수준에서 1.8%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188)=3.489, p=.06$ . 하지만 리더십 지위에 관해서는 이러한 패턴이 역전되어 나타난다. 즉, 외향성은 리더십 지위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지만,  $F(1,189)=3.304, p=.07$ , 권력동기는 외향성의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9.1%의 증분 설명량을 나타냄으로써,  $F(2,188)=19.250, p<.01$ , 외향성의 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권력동기가 외향성과는 별도로 권력지향적인 행동을 고유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권력지향적 행동을 예측하는 외향성, 권력동기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 $n=191$ )

결과변인	단계	투입변인	$R^2$	$\Delta R^2$	$\Delta F$	$\beta$	$t$
전체 활동경력수	1	외향성	.031	.036**	7.132**	.191**	2.671**
	2	외향성 권력동기	.044	.018	3.489	.147 .140	1.961 1.868
리더십 지위	1	외향성	.012	.017	3.304	.131	1.818
	2	외향성 권력동기	.099	.091**	19.250**	.031 .318**	.421 4.387**

주.  $R^2$  = 조정된(adjusted)  $R^2$ ,  $\beta$  = 표준화된(standardized) 베타 회귀계수

\*  $p<.05$ , \*\*  $p<.01$

## 논 의

동기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개념이기 때문에 인간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연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McClelland, 1985: Xu, Xu, Mellor, & Duan, 2012, p. 112에서 재인용), 권력동기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현재까지 부족한 실정이었다. 심리학의 어느 분야이든 연구에 있어서 핵심요소는 그 구성개념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이다(Mayer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굳건한 심리측정적 속성을 지닌 권력동기 척도를 제작하기 위해 Bennett(1988)이 제작한 IPR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권력동기 척도를 새롭게 구성하고, 다양한 기준에 걸쳐 권력동기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권력동기 척도의 2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보다 엄격한 검증을 위해 다양한 분석도구(예: SPSS, CEFA)와 분석방법(예: 평행 분석, 적합도 검증)을 사용하였는데, 모든 분석에서 일관되게 2요인 구조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교차 타당화를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2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다. 적합도 지수는 모두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 또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는 권력동기가 단일 요인이 아니라 2개의 핵심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지위 추구’와 ‘영향력 선호’ 간의 관계는 두 표본에 걸쳐 요인 간 상관인 .6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요인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은 권한이 있는 지위를 추구하고, 영향력을 갖거나 행사하기를 선호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권력동기 척도의 내적 합치도 또한 두 표본에 걸쳐 .9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권력동기 척도가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권력동기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권력동기 척도의 수렴, 변별, 그리고 규범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즉, 권력동기 척도는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사회적 지향성 척도, 권력욕구)와는 높은 정적 상관을, 상이한 구성개념으로 가정되는 척도(자존감, 사회적 바람직성)와는 낮은 상관을, 그리고 개념적으로 관련이 있는 척도(주장성, 비주장성, 과시욕구)와는 예상되는 방향으로 중등도의 정적, 또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하지만 구성타당도 검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언타당도로, 권력동기 척도가 실제 권력지향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만일 좋은 심리측정적 속성을 갖춘 검사도구라 할지라도, 실제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지 못한다면 외양만 화려하고 실제로는 구성개념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검사도구에 불과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 권력동기 척도는 권력지향적인 행동을 반영하는 지표인 전체 활동경력수, 리더십 지위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권력동기가 높은 학생은 학생회 임원에 더 많이 선출되며(Winter, 1973), 사회적으로 더 많은 단체에 가입되어 활동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Schonbrodt et al., 2009).

한편 성격특질인 외향성은 권력동기와 유사한 행동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변인이다. 성격특질과 리더십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외향성은 리더십 지위와 리더십 효과성 모두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Judge et al., 2002).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특질과 사회적 그룹에서의 지위획득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외향성이 높을수록 그룹 내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Anderson, John, Keltner, & Kring, 2001). 따라서 지위획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향성을 통제한 후에도 권력동기 척도가 리더십 지위를 고유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권력동기와 외향성의 차이를 입증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분

타당도 분석에서 권력동기 척도는 외향성과는 별도로 고유한 증분 설명량을 나타냈다. 특히 권력동기 척도가 전체 활동경력수 보다 리더십 지위와 더 밀접한 관련을 보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권력동기가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 활동의 양적 측면보다는 지위획득과 같은 질적 측면에 집중할 가능성과 더불어 조직 내에서 공식적인 직책이나 중요한 지위를 실제로 획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또한 권력동기가 장기적인 생애 결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Kunstman & Maner, 2011).

본 연구는 권력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간편하고 신뢰로운 척도를 제작함으로써 권력동기를 경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가능성은 통합적인 이론과 잘 설계된 연구뿐만 아니라 타당한 측정도구에도 달려 있다(Mischel, 2009). 특히 가설적인 구성개념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성격심리학에서는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데, 기존의 권력동기 연구는 투사적인 측정방식에 경도되어 온 측면이 있다. 투사적인 측정방식은 의식의 검열이 없는 상태에서 동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제통각검사를 사용한 연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Soley & Smith, 2008).

한편 권력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대부분의 자기보고식 측정도구 또한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타당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은 측정도구들이 단편적으로 사용된 결과, 상호 연관성이 없는 연구 결과들이 난립하는 결과가 초래된 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권력동기를 구성하는 하위 차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권력동기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으며, IPR 문항의 재해석을 통해

구성된 권력동기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전 과정에서 엄격한 통계적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작된 권력동기 척도는 투사적 측정방식에 비해 실사가 간편하면서도 한 개인의 동기적인 성향에 대해 상당히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며, 실용적인 강점이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척도 타당화 작업은 학교 장면에 있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조직 및 집단에 일반화하기에는 상당한 제한점이 있다. 물론 대학생들도 학생회나 자원봉사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권력동기를 추구하고, 표현하며, 충족시킨다. 하지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따라 동기의 중요도가 달라짐을 고려할 때(Kazen & Kuhl, 2011), 대학생의 일상에서 권력동기가 행동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심이 되는 동기라고 가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갈망하는 목표를 살펴보면 좋은 직장을 얻어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지(조혜정, 2013)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거나 타인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추구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더불어서 대학생들은 권력에 대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나 능력이 부재하다는 점도 연구결과와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권력동기에 대해 보다 신뢰롭고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일상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조직(예: 기업, 행정조직, 군대 등)과 권력동기를 합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참여자 집단을 대상으로 교차 타당화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동기가 실제 어떠한 행동으로 구현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Kazen & Kuhl, 2011).

더불어서 본 연구는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연

령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척도를 활용한 결과를 모든 연령대의 집단에 일반화하는데도 일부 제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권력동기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애 단계에 걸쳐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동기는 안정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생애 시기와 영역에 따라 동기의 중요성은 가변적일 수 있으며(Zubriggen, 2000), 인생 경험에 따라 강도가 변화할 수 있다(McClelland, 1985; Chusmir, 1986, p. 151에서 재인용). 특히 성인이 되어서는 권력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과 사건이 증가하기 때문에 권력동기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1957년과 1976년의 권력동기 수준을 비교한 횡단연구에서 권력동기는 중년기가 되었을 때 정점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는데(Veroff, Depnder, Kulka, & Donovan, 1980; Veroff, Reuman, & Feld, 1984), 이러한 결과들은 권력동기가 생애 발달 단계에 따라 어느 정도 변동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표본을 대상으로 일반화 가능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권력동기의 종단적인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유태용, 김명언, 이도형 (1997). 5요인 성격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0(1), 85-102.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95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77-290.
- 장승민 (2000). 권력동기와 친애동기가 분노의 체험과 표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남운 (2001).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 정남운 (2004).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37-51.
- 정보라 (2005). 사회적 바람직성의 구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혜정 (2013).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4(1), 157-184.
- 한병철 (2011). 권력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학과 지성사.
- Anderson, C., John, O. P., Keltner, D., & Krings, A. M. (2001). Who attains social status? Effects of personality and physical attractiveness in social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1), 116-132.
- Aquino, K., & Reed, A. (2002). The self-importance of moral ident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6), 1423-1440.
-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An essay on psychology and religion*. Chicago: Rand McNally.
- Bennett, J. B. (1988). Power and influence as distinct personality trai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sychometric measur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2(3), 361-394.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ooth, R. Z., Vinograd-Bausel, C. R., & Harper, D. C. (1984). Social power need and gender among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55(1), 243-246.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Browne, M. W., Cudeck, R., Tateneni, K., & Mels, G. (2008). CEFA: Comprehensiv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ersion 3.03 [Computer



- software and manual]. Retrieved from <http://faculty.psy.ohio-state.edu/browne/>.
- Campbell, D. T., & Fiske, D. W. (1959).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by the multitrait-multimethod matrix. *Psychological Bulletin*, 56(2), 81-105.
- Carroll, L. (1987). A study of narcissism, affiliation, intimacy, and power motives among students in business administration. *Psychological Reports*, 61(2), 355-358.
- Chusmir, L. H. (1986). Personalized and socialized power needs among working women and men. *Human Relations*, 39(2), 149-159.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 Cornelius, E. T., & Lane, F. B. (1984). The power motive and managerial success in a professionally oriented service industry organiz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9(1), 32-39.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11-17.
- Emmons, R. A. (1995). Levels and domains in personality: An introduction. *Journal of Personality*, 63(3), 341-364.
- Entwisle, D. R. (1972). To dispel fantasies about fantasy-based measures of achievement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77(6), 377-391.
- Fineman, S. (1977). The achievement motiv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Where are we now?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68(1), 1-22.
- Fiske, S. T. (2010). Interpersonal stratification: Status, power, subordination. In S. T. Fiske, D. T. Gilbert,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5th ed., pp. 941-982). New York: Wiley.
- Fodor, E. M., & Farrow, D. L. (1979). The power motive as an influence on the use of pow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1), 2091-2097.
- Fodor, E. M., & Riordan, J. M. (1995). Leader power motive and group conflict as influences on leader behavior and group member self-affec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4), 418-431.
- Fodor, E. M., & Wick, D. P. (2009). Need for power and affective response to negative audience reaction to an extemporaneous speech.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5), 721-726.
- Good, L. R., & Good, K. C. (1972). An objective measure of the motive to attain social power. *Psychological Reports*, 30(1), 247-251.
- Hayton, J. C., Allen, D. G., & Scarpello, V. (2004). Factor retention decision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tutorial on parallel analysi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7(2), 191-205.
- Hofer, J., Busch, H., Bond, M. H., Campos, D., Li, M., & Law, R. (2010). The implicit power motive and sociosexuality in men and women: Pancultural effects of respons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2), 380-394.
- Jackson, D. N. (1967). *Manual for the Personality Research Form*. Goshen: Research Psychologist Press.
- Jackson, D. N. (1984). *Personality Research Form manual*. Port Huron, MI: Research Psychologists Press.
- Jemmott, J. B. (1987). Social motives and susceptibility to disease: Stalk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health risks. *Journal of Personality*, 55(2), 267-298.
- Judge, T. A., Bono, J. E., Ilies, R., & Gerhardt, M. W. (2002). Personality and leadership: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4), 765-780.
- Kazen, M., & Kuhl, J. (2011). Directional discrepancy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power

- motives is related to well-being among managers. *Motivation and Emotion*, 35(3), 317-327.
- King, L. A. (1995). Wishes, motives, goals, and personal memories: Relations of measures of human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63(4), 985-1007.
- Kunstman, J. W., & Maner, J. K. (2011). Sexual overperception: Power, mating motives, and biases in social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2), 282-294.
- Langan-Fox, J., & Grant, S. (2006).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 Toward a standard measure of the big three mo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7(3), 277-291.
- Lilienfeld, S. O., Wood, J. M., & Garb, H. N. (2000). The scientific status of projective techniqu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1(2), 27-66.
- Magee, J. C., & Langner, C. A. (2008). How personalized and socialized power motivation facilitate antisocial and prosocial decision-mak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6), 1547-1559.
- Mayer, J. D., Faber, M. A., & Xu, X. (2007). Seventy-five years of motivation measures (1930-2005): A descriptive analysis. *Motivation and Emotion*, 31(2), 83-103.
- McAdams, D. P. (1988). *Power, intimacy, and the life story: Personological inquiries into identity*. New York: Guilford Press.
- McAdams, D. P., Healy, S., & Krause, S. (1984). Social motives and patterns of friend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4), 828-838.
- McClelland, D. C. (1987). *Human motiv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lelland, D. C., Koestner, R., & Weinberger, J. (1989). How do self-attributed and implicit motives differ? *Psychological Review*, 96(4), 690-702.
- Mischel, W. (2009). Becoming a cumulative science. *APS Observer*, 22(1). <https://aps. psychological science.org/index.php/publications/observer/2009/january-09/becoming-a-cumulative-science.html>에서 2014, 12, 2 자료 연음.
- Moser, K., & Gerth, A. (1986).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power motive questionnaire. *Psychological Reports*, 58(1), 83-86.
-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orthouse, P. G. (2004).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e*. Sage Publications.
- Paulhus, D. L. (1988). *Manual for 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 (BIDR-7)*. Toronto/Buffalo: Multi-Health Systems.
- Raskin, R. N.,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2), 590.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90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ssell, B. (2003). 권력 [Power: A new social analysis]. (안정효 역). 서울: 열린책들. (원전은 1938에 출판).
- Schönbrodt, F. D., & Gerstenberg, F. X. R. (2012). An IRT analysis of motive questionnaire: The unified motive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6(6), 725-742.
- Schultheiss, O. C. (2008). Implicit motives. In O. P. John, R. W. Robins, & L. A. Pervi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 Theory and research* (3rd ed., pp. 603-633). New York:

- Guilford Press.
- Schultheiss, O. C. (2013). The hormonal correlates of implicit motive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7(1), 52-65.
- Schultheiss, O. C., Dargel, A., & Rohde, W. (2003). Implicit motives and sexual motivation and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3), 224-230.
- Schultheiss, O. C., & Pang, J. S. (2007). Measuring implicit motives. In R. W. Robins, R. C. Fraley & R. Krueger (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personality psychology* (pp. 322-344). New York: Guilford.
- Schultheiss, O. C., Strasser, A., Rösch, A. G., Kordik, A., & Graham, S. C. C. (2012). Motivation. In V. S. Ramachandran (Ed.),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2nd ed., pp. 650-656). Oxford, GB: Elsevier.
- Schultheiss, O. C., Yankova, D., Dirlikov, B., & Schad, D. J. (2009). Are implicit and explicit motive measures statistically independent? A fair and balanced test using the picture story exercise and a cue-and response-matched questionnaire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1), 72-81.
- Sokolowski, K., Schmalt, H. D., Langens, T. A., & Puca, R. M. (2000). Assessing achievement, affiliation, and power motives all at once: The Multi-Motive Grid (MMG).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4(1), 126-145.
- Soley, L., & Smith, A. (2008). *Projective techniques for social science and business research*. The Southshore Press.
- Thrash, T. M., Maruskin, L. A., & Martin, C. C. (2012). Implicit-explicit motive congruence. In R. M. Ryan (Ed.), *The Oxford handbook of human motivation* (pp. 141-15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 Veroff, J., Depner, C., Kulka, R., & Douvan, E. (1980). Comparison of American motives: 1957 versus 1976.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249-1262.
- Veroff, J., Reuman, D., & Feld, S. (1984). Motives in American men and women across the adult life 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20(6), 1142-1158.
- Wang, J., Liu, L., & Zheng, Y. (2011). Effects of implicit power motive on the processing of anger faces: An event-related potential stud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5), 441-447.
- Wiggins, J. S., Trapnell, P., & Phillips, N. (1988). Psychometric and ge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Revised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IAS-R).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3(4), 517-530.
- Winter, D. G. (1973). *The power motive*. New York: Free Press.
- Winter, D. G. (1987). Leader appeal, leader performance, and the motive profiles of leaders and followers: A study of American presidents and ele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196-202.
- Winter, D. G. (1988). The power motive in women-and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3), 510-519.
- Winter, D. G. (1991). *Manual for scoring motive imagery in running text* (3rd ed.).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Winter, D. G. (1992). Power motivation revisited. In C. P. Smith (Ed.),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ndbook of thematic content analysis* (pp. 301-310).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nter, D. G. (1993). Power, affiliation, and war: Three test of a motivational model.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3), 532-545.
- Winter, D. G. (2007). The role of motivation, responsibility, and integrative complexity in crisis escalation: Comparative studies of war and peace cri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5), 920-937.
- Winter, D. G., John, O. P., Stewart, A. J., Klohnen, E. C., & Duncan, L. E. (1998). Traits and motives: Toward an integration of two traditions in personality research. *Psychological Review*, 105(2), 230-250.
- Xu, X., Xu, Y., Mellor, D., & Duan, L. (2012). Motivation and social contexts: A crossnational pilot study of achievement, power, and affiliation mo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7(2), 111-117.
- Zubriggen, E. L. (2000). Social motives and cognitive power-sex associations: Predictors of aggressive sexu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3), 559-581.

1 차원고접수 : 2017. 09. 09.

수정원고접수 : 2017. 11. 10.

최종게재결정 : 2017. 11. 21.

## **Reliability and Validity of Power Motive Scale: Reinterpretation of ‘Index of Personal Reaction’**

**Hyunseok Ko**

Korea Air Force Academy

**Kyunghwan Min**

Seoul National University

**Minhee Kim**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Power motive influences a number of important social behaviors, but an appropriate scale measuring power motive has not been developed in Korea.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a self-report scale that can reliably measure power motive in Korean. Based on the literature, ‘status pursuit’ and ‘influence preference’ were hypothesized as two underlying structures of power motive. Six hundred and four undergraduate participants completed a survey which included corresponding items from Index of Personal Reaction (IPR; Bennett, 1988), then reliability, factor structure, and construct validity were examined. The findings showed high internal consistency, and both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revealed two-factor structures of ‘status pursuit’ and ‘influence preference’. Power motive was also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 variety of criterion variables in the expected directions, which confirmed convergent, discriminant, nomological, and predictive validity. Furthermore, power motive predicted status pursuit by showing significant incremental variance after extraversion was controlled for. The overall findings indicate that the currently-developed power motive scale is a reliable and valid measure for individuals’ differences in power motive.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t the end.

*Key words : power motive, status pursuit, influence preference, construct validity, predictive validity*

부록 1. IPR 전체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지위 추구)	요인2 (지각된 능력)	요인3 (복종에 대한 저항)	요인4 (영향력 선호)
IPR16	<b>-.902</b>	-.043	.041	.031
IPR15	<b>-.817</b>	.039	-.095	.020
IPR21	<b>.671</b>	.096	.029	-.169
IPR17	<b>-.662</b>	-.066	.015	.116
IPR18	<b>.655</b>	.077	.043	-.089
IPR14	<b>-.629</b>	.121	-.084	-.088
IPR13	<b>.619</b>	.081	.003	-.106
IPR20	<b>.483</b>	.230	.100	-.225
IPR22	<b>.394</b>	.226	.002	-.235
IPR19	<b>-.382</b>	-.027	-.017	-.127
IPR11	-.033	<b>.805</b>	-.082	.076
IPR12	.062	<b>.803</b>	-.094	.107
IPR5	-.152	<b>.610</b>	.032	-.076
IPR3	.052	<b>.599</b>	.076	.119
IPR9	.100	<b>.589</b>	.117	-.107
IPR2	.082	<b>.564</b>	.081	.000
IPR8	.047	<b>.531</b>	-.057	-.126
IPR6	-.081	<b>.527</b>	-.016	-.039
IPR7	.088	<b>.512</b>	-.070	.044
IPR1	.155	<b>.482</b>	.052	-.064
IPR4	.058	<b>.445</b>	-.136	-.159
IPR10	-.093	<b>.416</b>	.115	-.085
IPR39	.035	-.027	<b>.756</b>	.124
IPR33	.044	-.134	<b>.684</b>	-.074
IPR34	.219	-.069	<b>.632</b>	-.095
IPR37	-.034	.107	<b>.622</b>	.123
IPR35	.032	.156	<b>.486</b>	.167
IPR32	-.048	.071	<b>.456</b>	.035
IPR38	-.203	-.063	<b>.415</b>	-.144
IPR36	-.023	-.056	<b>.359</b>	-.155
IPR28	.146	-.015	-.025	<b>.730</b>
IPR27	.130	-.024	-.061	<b>.680</b>
IPR30	.163	.124	.068	<b>.615</b>
IPR23	.329	.027	.013	<b>.554</b>
IPR24	.311	.015	-.030	<b>.498</b>
IPR25	.167	.111	.031	<b>.497</b>
IPR26	.352	.240	.008	<b>.456</b>
IPR29	.259	.263	.056	<b>.442</b>
IPR31	-.201	.082	.024	<b>.431</b>
평균(표준편차)	3.12(.76)	3.37(.54)	2.99(.62)	3.71(.61)